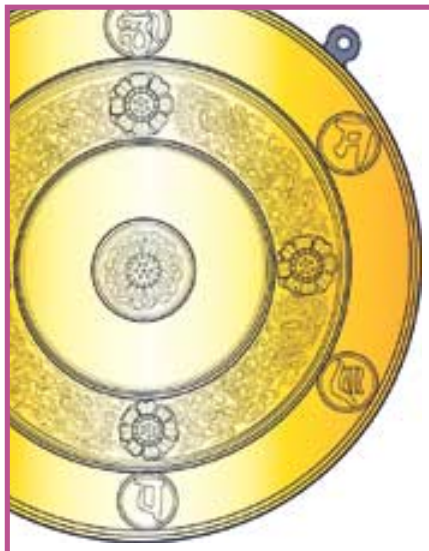


범종 · 법고 · 목어 · 운판 디지털로 환생



신록사 금고



내소사 운판



국립부여박물관의 '개태사 금고'



전등사 목어

범종(梵鐘)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版). 그 성스럽고 화려하며 깊은 울림을 간직한 불전사물(佛殿四物)이 디지털콘텐츠로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 디지털 2D 3D이미지로 변신한 불교 콘텐츠는 전국 94곳의 사찰 및 박물관에 있는 170여점의 불전사물이다.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의 불전사물과 금고는 디지털 이미지화와 함께 5.1채널 디지털 음원으로 변신을 끝마쳤다. 범종이나 법고 등에 포함된 문양들도 단독 이미지로 뽑아졌다.

▲ **사찰설화 10편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디지털 콘텐츠화가 완료된 불교문화재는 성덕대왕신종 등 범종 60점, 용틀임을 자랑하는 미래사 법고 등 법고 33점, 붉은색이 화려한 옹주사 목어 등 목어 34점, 운판 25점, 황금빛 신록사 금고 등 금고 11점 등이다.

450여개 이미지와 120여개 음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콘텐츠들은 시범운영 중인 사이트 '산사의 소리(sansa.culturecontent.com)'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디

전국 94곳 사찰 소장 170여점 선정
이미지 450여점 · 음원 120여개 제작
문화상품 · 패션디자인 등 활용도 높아

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이 끝나는 대로 '산사의 소리'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개발 이미지들을 담은 CD '산사의 소리-불전사물 디지털 콘텐츠'도 1000개가 만들어져 배포된다.

불전사물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은 불교방송(사장 이성언)이 맡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공모에 '범종을 중심으로 한 불전사물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산업적 활용' 사업이 선정돼 1년 동안 불전사물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이번 콘텐츠 개발은 불교방송이 개국 이래 처음으로 시도한 문화콘텐츠 작업이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문위원은 범종 운판 금고 주조법 관련해서 원광식 대표(성종사 ·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가), 2D · 3D · 텍스트는 윤범모 교수(경원대 미술사학과)가, 조각 · 문양은 박찬수 목아박



불교방송 뉴미디어팀 박시하 팀장이 '산사의 소리' CD를 시연해 범종콘텐츠를 설명하고 있다.

물관장(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이, 2D · 3D · 웹 구축은 송필순 교수(한국디지털대학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가, 불교설화 · 플래시 애니는 고윤기 교수(연세대 국학연구원)가 각각 맡아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수덕사 운판



미래사 법고



내소사 동종

불교방송은 가려뽑은 사찰설화 10편을 '마음을 울리는 소리' '부처님 되기' '은혜를 갚은 팥' 등 누구나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 **해당사찰서 사용시 무상 제공**
박시하 팀장(불교방송 뉴미디어팀)은 "각 사찰에 해당 불전사물 이미지 및 소리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며 "불전사물의 이미지와 소리를 해당사찰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불전사물 콘텐츠 가운데 전통문양들은 문화상품 패션디자인 출판 인테리어 웹 콘텐츠 등 한국적인 이미지 재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불전사물의 음원과 동영상 설화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방송 광고 영화의 소재 및 모바일 리소스에 대한 활용도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불교방송은 전통사찰 관련 제2차 문화원형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02)705-5401

글=김지연 기자 · 사진제공=불교방송

소리 이용해
땅 · 하늘 · 바다 · 지옥에
부처님의 진리 전파 기원
불전사물이란?

불전사물은 사찰에서 조 · 석 예배 때 치는 범고 목어 운판 범종을 말한다.

법고는 축생의 무리를, 운판은 하늘을 나는 생명, 목어는 수중의 생명에게 소리를 보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모두 소리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가 중생에게 전해져 해탈성불을 염원하는 의미이다.

사물의 범음을 예불 전에 행하는 이유는 땅위

의 중생, 하늘을 나는 중생, 물 속의 중생, 저 지옥의 죄 많은 중생과 천인(天人)들까지, 모두 이 범회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다같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동체대비(同體大悲)를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의 울림 속에는 나 한 몸만의 수행이 아닌 모든 중생의 수행, 나 하나의 성불이 아닌 일체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지고한 정신이 담겨 있다.

금고는 불전사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금구(金口) 또는 반자(飯子)라고도 불리는 쇠북을 가리킨다. 사찰의 종루나 처마 밑에 걸여두고 공양 시간을 알려거나 대중을 집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법당에서 예불을 올릴 때 종송과 함께 의식에 사용된다.

금고를 치면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짐승이 정각을 얻는다고 한다.



오랫머 서 있는 '비파나무 잎새'에서도 한기는 작가의 명상을 말한다.

돌에 새긴 명상

'한기름 조각전'

세종문화회관 신관 2전시실
6월 28일~7월 4일

돌을 통해 명상하는 조각가 한기름씨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신관 2전시실에서 6월 28일~7월 4일 '조각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가 사용하던 스타투아리오 대리석으로 계곡에 서있는 여인의 모습, 대나무와 연꽃을 형상화했다. '비파나무 잎새' '가더릴' '내심의 향기' '자연 속에서' 등의 작품은 자연과 교감해온 작가가 그 속에서 명상으로 표현해낸 몇 가지 도상을 상징화시킨 것들이다. 한기름 작가의 조각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에서의 체험을 다룬다고 평가받는다. 일상이 조각으로 체화된 작품인 것이다.

한기름 작가는 15년 동안 이탈리아 중서부 도시의 지중해와 알프스 산맥이 있는 휴양지에 머물면서 그곳의 대리석을 통해 자신의 단상들을 하나씩 돌씩 조각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지금껏 해오고 있다. 대리석과 함께 참선에 들어 자기 일상을 그 안에 조금씩 밀어 넣는 일이다.

미술평론가 박영택 교수(경기대)는 "한기름 작가는 돌 안에 인간과 자연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한 편의 시를 써넣듯 조각을 한다"며 "보는 이의 시선과 마음을 휴지(休止)케 하는 한 작가의 조각은 명상 수행의 자세를 연상시키기에 불상을 닮았다"고 평한다. (02)399-1154 김지연 기자

용문사 윤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민동불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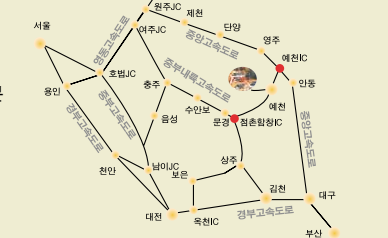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웅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권반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양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양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